

**짐바브웨,  
방문 전 참고내용  
07년 1/16 기준**

## 1. 국명 유래 및 문화적 관습

### 가. 국명 유래

- “Zimbabwe”라는 국명은 토착어인 “Shona”어로 “Dzimba Dze Mabwe(House of Stones)”에서 유래된 것으로서, 암반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짐바브웨는 돌과 관련된 문화유적/유산 및 광물자원으로 유명함.
- 짐바브웨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“Great Zimbabwe”는 A.D. 13 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고대왕국의 석조 유적으로서 피라미드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석조 건물로 알려져 있으며(남부 Masvingo 지역에 위치), “Shona sculpture”로 불리는 돌 조각도 세계적으로 유명함.
- 짐바브웨는 200여종의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(특히, 짐바브웨 북동에서 남서 방향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“Great Dyke” 지역에 집중 분포), 특히, 금, 백금, 크롬, 석면, 니켈 및 석탄 등 상업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해도 약 3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최근에는 짐바브웨 동부 Mutare 인근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대량 발견되기도 함.
- 수도 “Harare”는 영국의 식민통치시절에는 “Salisbury”로 불렸으나, 1980년 독립시 19세기 이곳을 지배했던 Shona 부족장 “Neharawa (잠들지 않는 자)”를 추모하여 새로 명명한 이름임.

### 나. 문화적 관습

- 짐바브웨 사람들도 아프리카 특유의 가무를 즐기는 편이며, 시골에서는 보통 밤에 집단적인 욕구로 북과 ‘마림바’란 전통악기를 가지고 춤과 노래를 즐김. 이들은 가무를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분출하는 한편, 성공적인 사냥, 기우제 등 은연중의 희망을 표현함.
- 가정에서 여자 아이가 부친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으로서 여겨지며 모친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할 만큼 가부장 제도가 엄격함(부친이 사망하면 장자가 모든 권한을 상속함).
- 다수의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짐바브웨에서도 소는 부의 상징이며, 소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회에서 예우를 받을 만큼 소는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.

- 농촌 지역에는 아직도 일부다처제가 많으며, 경제능력이 있는 자는 자신의 힘과 경제력을 드러내고자 보통 2 ~ 5명 정도의 부인이 있으며, 자녀도 보통 15 ~ 20명 정도를 둠.
- 짐바브웨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때 신부 값(Lobola)을 치루어야 하는 독특한 풍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음.
  - 예비 신랑은 자신의 가족 중의 한 사람에게 먼저 신부측의 가족에게 결혼의사를 전달하고, 신부측이 이에 동의하면 남자측이 신부측 가족에게 신부 값을 치루어야 하며, 이는 신부에 대한 사랑의 증명인 동시에 부당한 이혼에 대한 안전장치이기도 함.
  - 통상 소 몇 마리 또는 현금, 의류 등으로 지불되며, 신부가 고학력이나 좋은 직업을 가진 경우일수록 많은 Lobola를 지불하게 되고, 보통 서민의 경우 50 ~ 100미불 상당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.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랑의 경우에는 수년간 분할 지불하기도 함.
- 일부 농촌 지역 주민들은 마을에서 괴질이나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어떤 사람의 저주나 가족 중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여, Traditional Healer 혹은 Witch doctor(무당)의 지시에 따라 처방(예: 해당 가족원을 추방 또는 근신)하기도 함.

## 2. 국민성 및 대화시 에티켓

### 가. 국민성

- 대부분의 짐바브웨인은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을 보유하고 있고, 인사성이 매우 밝은 편임 (예: "How are you?"라는 인사말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음).
- 다만, 면전에서 바로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길을 물었을 때도 모른다는 답변 대신 엉뚱한 안내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, 면전에서 "Yes"를 한다고 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.

### 나. 대화시 에티켓

- 짐바브웨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자존심이 비교적 강한 국민들이므로,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, 특히 짐바브웨 대통령 등 정부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 해야함.

- 상대말 인사말에 응대를 해주고, 대화시 간단한 현지어를 구사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음.

※ 간단한 현지어 (“Shona”어)

I am pleased to meet you = Tafara Nekukuzivai (타파라 네쿠쿠지바이)

How are you? = Makadinin henyu? (마카디니 헨유?)

I am fine and you? = Tiripo. Makadiniwo? (티리포. 마카디니우?)

Good morning = Mangwanani (망과나니)

Good afternoon = Masikati (마시카티)

Good evening = Manheru (마네루)

Good night = Usiku (우시쿠)

Thank you = Tatenda (타텐다)

You are welcome = Titambire (티탐비레)

Excuse me = Pamusoroi (파무소로이)

My name is KIM = Ndinonzi KIM (응디농지 김)

What is your name? = Munonzi ani? (무농지 아니?)

(식사) It is delicious = Chirikunaka (치리쿠나카)

(식사) I am full = Ndaguta (응다구타)

(식사) I am hungry = Ndava nenzara (응다바 넌자라)

### 3.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

#### 가. 입국사증 ( 비자 )

- 외국인들을 세가지 부류 ( A : 무사증, B : 입국지점 발급, C : 사전 취득)로 나누어 입국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한국인은 98. 12월부터 B category로 분류되어 공항에서 입국사증 발급이 가능함.
  - 사증 수수료 : 단수 사증 30미불, 2회 입국 사증 45미불
  - 체류기간 : 관광사증 통상 30일(최대 6개월까지)
  - \* 공항에서는 통상 복수사증을 발급하지 않음.

#### 나. 언론인의 취재차 방문시 유의사항

- 외국 언론인의 방문시는 짐바브웨 공보부(Ministry of Information and Publicity)로부터 취재허가(press accreditation)를 받아야 함.
  - 취재허가 신청 수수료 : 1인당 600미불
- 상기 취재허가 외에 국립공원 지역의 촬영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청(Department of National Parks and Wildlife)으로부터 별도의 촬영허가(filming license)를 받아야 함.
  - 촬영허가 신청 수수료 : 국립공원관리청에서 지정
- 상기 취재허가 및 촬영허가 외에 촬영장비의 무관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세청(Zimbabwe Revenue Authority, 관세청 기능도 포함)으로부터 장비 도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.
- 짐바브웨는 외국 언론인의 방문 및 취재 활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통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, 상기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함.

#### 다. 출입국시 외환신고 및 물품 반출 관련 유의사항

- 짐바브웨는 외환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짐바브웨 출국시 외환소지한도를 원칙적으로 1000미불로 제한하고 있으므로, 입국시 세관에 외환보유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( 동 신고금액 범위내에서 외환 반출 가능).



- 일반 관광 기념품 반출은 제한 없이 가능하나, 상아, 코뿔소 뿔, 동물가죽 및 귀금속 원석 등의 경우는 반출허가증(certificate)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, 동 품목 구입시에는 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반출허가증을 요구해야 함.

## 라. 풍토병 및 보건

- 말라리아 : 수도인 Harare에서는 예방약 복용이 필요치 않으나, 특히 우기(11월 ~ 3월)시 Victoria Falls 등 지방을 여행할 경우에는 1주전에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함.
- 황열병 : 짐바브웨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이 필요치 않으나(공항 입국시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지 않음), 여타 아프리카 국가로의 연계 여행시에는 가급적 사전 예방접종을 받고 올 것을 권장함.
- AIDS 감염률이 높으므로 주의 요망

## 마. 외환 사용 및 환전

- 외국인은 호텔 숙박비 및 관광지 이용료 등 주요 비용을 미불 등 외환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음. 다만, 슈퍼에서 생필품 구입 및 간단한 관광상품 구입 등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짐바브웨 달러로 지불이 가능함.
- 환전은 공항 및 시중에 소재한 은행과 호텔 및 환전소 등에서 환전이 가능함. 단, 남은 현지화를 미불로 재환전을 할 경우에는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, 현지화로 사용할 적정 금액만 환전하는 것이 좋음.
- 일부 고급호텔 및 식당에서는 신용카드가 통용되나, 거래의 안전성 및 환율 등 측면에서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음.

## 바. 치안상태

- 최근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짐바브웨 일반국민들의 생활고 악화 및 실업자 증가 등의 여파로 강절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, 주의가 필요함(일몰 후에는 바깥 출입 삼가).
  - 특히, 한국인 등 동양인 관광객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.

- 일부 배낭여행의 경우 비용절약을 위해 저렴한 숙소에 투숙하는 경우가 있으나, 이들 숙소의 경우 경비가 취약하여 강절도 타켓이 될 수 있으므로, 호텔 등 안전한 숙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함.
- 길거리에서 암시장 환율로 환전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현금을 노린 강도 또는 짐바브웨 당국 단속반일 위험성이 있으니, 은행, 호텔 및 공식 환전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장함.
- 렌트 차량 이용시에도 창문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, 차안에 가방 등 귀중품을 방치하는 것은 도난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됨(가방 등 귀중품은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좋음).

#### 사. 광물 관련 사기 주의

- 최근 짐바브웨 동부 Mutare 인근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이 대량 발견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다이아몬드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(불법 거래 적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).

#### 아. 수돗물

- 짐바브웨 현지 주민들은 수돗물을 음용하는 경우가 있으나, 가능한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할 것을 권장함.

#### 자. 대중교통

- 외국인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, 콜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함.

#### 차. 물가

- 최근 경제난 악화로 전년대비 1000%가 넘는 hyper-inflation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대부분의 공산품은 남아공 등 인접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미환 환산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임.

#### 카. 팁 제도

- 호텔 및 식당 등에서 소비액의 약 5 ~ 10%를 주는 것이 관례이나, 반드시 팁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.

타. 전기시스템 : 220 ~ 240V 및 50Hz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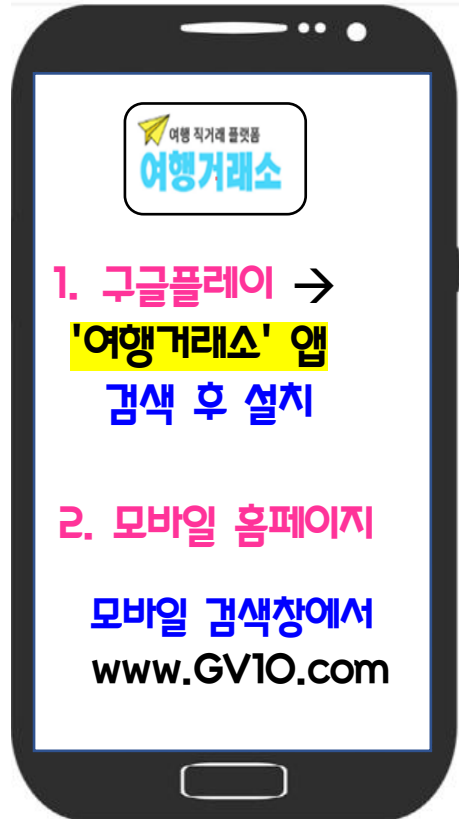
- 한국과 달리 50Hz를 사용하고 있으므로, Hz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밀 전자기기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.

파. 시차 : 한국보다 7시간 늦음.

출처 : 주 짐바브웨 한국 대사관 ( 070116 )



## 갤럭시 폰에서



**모바일 검색창에서**  
**모바일 홈페이지**  
[www.GV10.com](http://www.GV10.com)

-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
-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
-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
- 현지 생생정보
-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
-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!!

## 아이폰에서

